

경제

“파업만은...” 금호타이어 심야 협상

노조 하루만에 복귀 ... 밤늦도록 절충안 모색

사측 “워크아웃 중 파업은 공멸” 자제 호소

금호타이어 노조가 1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협상결렬 하룻만에 마지막 협상을 재개해 결과가 주목된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40분 제2차 본교섭을 열어 막판 대타협을 시도했다. 전날 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했지만 사태의 심각성과 지역여론을 의식해 협상이 복귀했다. 노사 모두 이날 협상이 마지막이라며 임금 삭감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일괄타결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극적 타결이나= 사상 초유의 워크아웃이라는 현실과 파업을 우려하는 지역사회 여론을 의식, 노사 모두

대타협 방안을 찾고 있다. 극적 타결을 이룰 경우, 채권단의 긴급 자금(신규자금 1천억원, 신용장 3천만달러 규모)이 풀리고, 워크아웃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돼 회사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 상여금 200% 반납’을, 사측은 ‘기본급 15%와 상여금 200% 삭감’을 최종수정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상여금 200%에 대한 ‘삭감’과 ‘반납’의 차이 해설을 노조는 모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제18차 본교섭에서 생산성 향상과 단체협약 등 모두 38개 조항에 대해 노사가 합의

를 이뤄 이같은 기대를 높였다. 지역 사회도 “파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대타협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은 지난달 30일 “파국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면 파업이나= 노사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노조는 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광주공장과 광명공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곡성공장은 오전 7시부터 각각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에 맞춰 지역 노동계도 총파업으로 연대할 방침이어서 자칫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달 31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1일 오후 3시 광주송정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사태 추이를 보아가며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측은 즉각 직장 폐쇄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또 2일 정리해고도 감행하고, 광주지법의 인용에 따라 노조 간부들에게 하루 1억원의 강제징금을 물리는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측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워크아웃 상황에 놓인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조는 공멸을 피하고 신속히 임단협을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측은 “채권단과의 기업개선 약정(MOU) 체결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 워크아웃을 통한 회사의 경영 정상화 일정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 상황이 계속되면 채권단이 워크아웃 대신 회사의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 화학기업 ‘대변신’

호남석화·한화석화 등 사명 변경 글로벌 기업 성장 모색

여수에 공장을 둔 화학기업들이 회사이름을 바꾸고 사업분야를 확대하는 등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석유화학이 한화케미칼로 회사명을 바꾼데 이어 롯데그룹 계열 호남석유화학도 올해 안에 회사 이름을 바꿀 예정이다. ‘아시아 최고 화학기업’으로 도약을 노리는 호남석화는 전체 매출의 70%가량을 중국에서 올리는 상황에서 회사 이름이 중국 후난(湖南) 지방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몇 년 전부터 제기돼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호남석화 관계자는 “중국의 ‘지방 기업’으로 오인되고, 고객사들

에 자칫 ‘값싼 제품’이라는 오해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개명 작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면서 “올해 안에 새로운 사명과 기업이미지(CI) 재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석화는 당초 올 상반기 중 사명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추진해온 롯데그룹 계열 KP 케미칼과의 합병이 마무리되지 않아 그 시기를 하반기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석유화학 회사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호남석화는 올해 KP 케미칼과 합병할 경우 매출규모가 9조원대로 커지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8년 매출 40조 원을 달성해 ‘아시아 최고 화학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석유화학은 지난달 4일 40년 넘게 써온 회사명을 한화케미칼로 변경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유화중심의 사업구조를 다각화해 내수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이름을 바꿨다”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은 올 연말 중국 난보에 30만 t 규모의 폴리염화비닐(PVC) 플랜트를 완공하고, 2014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32만5천 t 규모의 합작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성호 익산국토관리청장 시공사 방문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하도급 참여 늘려달라”

광주·전남 기업 체감 경기 호전 4월 전망도 25개월만에 최고치



KT 광주마케팅단(본부장 전호중·왼쪽에서 네번째)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 )는 지난달 31일 KT광주정보통신센터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적 이해각서를 체결했다. <KT광주마케팅단 제공>

KT 광주마케팅단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대기업·중기 상생 협정 체결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건물매매

사원 모집 (유)코리아랜드 대표전화 959-1033, 010-7723-1033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